■ 경찰, 노래방 강도 ‘132일간의 추적’ 문제점

노래방 강도 ‘132일간의 추적’ 무엇이 문제였나?

광주시내 노래방 업계를 불안에 떨게 했던 연쇄 노래방 강도극이 지난 8일 밤 막을 내렸다.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했지만, 경찰은 잘못된 수사 관행 등 곳곳에 허점을 노출했다.

〈관련기사 20면〉

잘못된 수사 관행 범죄 키웠다

수사 초기 나이·전과·신원 모두 틀려

“유력 용의자 검거” 발표 후 또 발생

◇전과 없는 20대 초반만 수사=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를 묶은 후 신용카드 비밀번호가 맞으면 풀어준 점 ▲흉기를 단순 위협용으로 사용한다는 점 때문에 7번째 노래방 강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까지도 전과가 없는 사람으로 판단했다. 특히 부인·아이가 병원에 입원하는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 20대 초반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뒤늦게 지난 4월 중순부터 24~34세까지의 남자 12만 여명을 대상으로 폭을 넓혔다.

범인은 또 세 차례나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폭력으로 실형까지 살았던 전과 4범의 전직 미용사였다. 범인은 월 50만~60만원의 낮은 보수 때문에 업주와 갈등을 빚고 4개월 전 직장을 그만둔 뒤, 강도 행각을 벌였다. 강탈한 2천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은 인터넷 리니지 게임비·여관비·유흥비 등으로 탕진했다.

◇경찰도 인정하지 않은 몽타주=경찰은 초상화를 포함 몽타주를 4회 작성·배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1·2번째 몽타주는 복면을 하고 두건과 모자를 눌러 써 알아볼 수 없었다. 세 번 째 만들어진 몽타주도 목격자들이 “전혀 얼굴이 다르다”고 진술,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눈이 찢어지고 날카로운 인상’이라며 몽타주를 뿌려 댔지만 정작 범인은 눈이 크고 비교적 잘생긴 얼굴이었다.

◇‘그놈 목소리’는 ‘환청’=“수고하십니다. 오치파출소 맞은 편 A노래방 가보셨습니까?” 지난 1월13일 112 지령실에 걸려온 범인의 전화를 받은 경찰은 범인이 “말을 ‘다’,‘까’로 끝내는 무전기 사용 습관이 남아 있는 의무경찰 출신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잠복 근무에 동원됐던 방범순찰대원들이 집회 등에 동원된 지난 3월15일과 16일 이틀 연속 노래방 사건(10·11번째)이 터져 이 같은 분석이 힘을 얻기 시작했다.

경찰은 ‘그놈 목소리’를 공개하고 지난해 제대한 의무경찰의 명단을 확보해 확인 작업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지만 범인은 정작 육군 병장 출신이었다.

◇용의자 검거 후 또 터진 동일범죄=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6일 노래방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 추적해 온 서모(27)씨를 붙잡았다고 발표했지만, 이틀 뒤 북구에서 노래방 강도가 또 발생했다. 범인이 유치장에 갇혀 있는데도 며칠 후 동일범죄가 터진 것이다.

경찰은 지금껏 발생한 16건 중 14건의 혐의를 인정한 옥씨를 상대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2건(북구·광산)의 관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 3건, 광산 1건 등은 목격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이곳은 서씨의 범행이거나 다른 누군가의 모방범죄일 가능성 제기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지역 연쇄 노래방 강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 옥모씨.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5·18 영화 ‘화려한 휴가’ 제작 보고회

광주 5·18 민중항쟁을 다룬 ‘화려한 휴가’ 제작 보고회가 9일 오전 서울 압구정 CGV에서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지훈 감독, 안성기, 김상경, 이요원, 이준기, 박철민. /연합뉴스

법인 자충수에 ‘덜컥’

수표에 주민번호·실명 남겨

경찰, 노래방 강도 영장

피의자는 ‘친숙한 장소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하는 습관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그는 빼앗은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지난 2월13일 숙식을 해결하던 광주시 북구 우산동 ‘구호전’ 인근 T편의점 현금인출기를 이용했다. 일주일 뒤에는 이곳에서 직선거리로 1㎞ 떨어진 북구 중흥동 ‘중흥장례식장’ 근처에서 수표로 복권을 구입했다.

가장 큰 실수는 수표 뒷면에 이서를 요구하는 주인의 요구에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에서 단 3개의 숫자만을 고치고, 이름도 ‘옥-’이라고 썼다가 ‘김성철’로 고친 것. 또 진짜 주민번호 뒷자리 두번 째 숫자인 ‘6’을 ‘5’로 쓰면서 아랫부분의 끝을 올려 6과 비슷하게 쓰는 습관을 그대로 남겼다.

앞서 지난 1월13일에는 현금인출기에서 20여m 떨어진 곳에 있는 공중전화기로 경찰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에서 불과 10여m 떨어진 PC방은 온라인 게임 리니지를 하기 위해 회원에 가입한 상태였다. 또 주변 지리에 익숙, 과거에 살았던 두암동·학동·서구 화정동 노래방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은 광주지역에서 금을 내다판 740명의 신원을 조사, 옥씨가 수표에 남긴 가짜 번호를 서로 대조해 숫자가 4~5개 다른 47명을 찾아냈다. 또 PC방 5곳에서 회원 명단과 주민등록번호를 확보, 필체를 감정했다. 하지만 그 순간 옥씨는 ‘구 호전’에서 불과 1㎞ 떨어져 있는 동구 계림동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자충수(自充手)에 걸려 붙잡힌 피의자 옥씨는 9일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 협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최소 4~5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됐다. /이종행기자 golee@

“변론준비기일도 ‘첫 변론기일’ 해당”

광주지법 판결

배당이의(配當異議) 소송 중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하는 등 소송을 계속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김규장)는 9일 이모(61)씨가 오모(47)씨를 상대로 낸 배당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 민사집행법 제185조를 기계적으로 적용,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 ▲배당이의(配當異議) 소송=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배당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진행되는 재판.

재판부는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해 필요한 주장을 하고 증거를 제출했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1회 변론기일에 참석하지 못했더라도 소 취하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씨는 1심 법원이 첫 변론준비기일에 출석, 소장과 준비서면을 진술했으나 한 달 뒤 열린 첫 변론기일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158조의 규정을 적용,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에 항소했다.

한편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한 달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을 하지않으면 소 취하로 간주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나원참 〈7205〉 김종두

대학진학 말다툼 父子간 주먹질

쌍나팔

○…대학진학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부자(父子)가 서로 주먹을 휘둘러 나란히 경찰서행.

○…광주 서부경찰에 따르면 9일 새벽 4시40분께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회사원 O(46)씨는 재수생인 맏아들(18)을 깨워 “대학도 못 간 놈이 잠이 오느냐”며 홧김에 손찌검을 했으며, 아들은 “나도 노력하고 있다”면서 아버지 가슴을 밀치며 폭행했다는 것.

○…아버지의 신고로 경찰에 연행된 부자는 “‘술’과‘스트레스’ 때문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는데, 같은 시간 O씨의 부인은 인근 교회에서 ‘아들의 진학’과 ‘가족의 화목’을 기원하며 새벽기도를 올리고 있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집으로 돌려보내 대화의 시간을 가지도록 했다”면서도 씁쓸한 표정.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